

“한 번에 쉽고 편리한 나만의 고용서비스를 받는다” 「고용24」가 시작됩니다!

- 고용노동부 장관, 한국고용정보원 찾아 「고용24」 시연회 및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 가져 -

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운영에 들어간 「고용24」를 통해 모든 국민이 컴퓨터(PC)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.

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.11.(월) 15:30 한국고용정보원(원장 김영중, 이하 ‘고용정보원’)을 찾아 고용정보원 임·직원, 고용서비스 전문가와 함께 「고용24」를 시연하고 「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」를 했다.

「고용24」는 그간 워크넷(취업지원), 고용보험(실업급여, 고용장려금), 직업훈련 포털(내일배움카드), 취업이룸(국민취업지원제도) 등 분절적으로 운영하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신청·신고·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지능(AI),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한 디지털 고용 플랫폼이다.

앞으로는 구직자, 구인기업 모두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각종 온라인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「고용24」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구인구직(24종), 실업급여(14종), 직업훈련(11종) 등 100여 종의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.

특히 청년 구직자는 ‘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’, ‘청년도전지원사업’ 등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「고용24」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「고용24」에 탑재된 인공지능 기반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재학생에게 전공·적성에 맞는 진로탐색·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.

한편 이 장관은 「고용24」 시연 이후,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한 고용정보원의 역할과 디지털·데이터 서비스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.

이 자리에서 고용정보원은 올해 하반기 「고용24」 정식 오픈 전까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「고용24」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의 디지털 수요를 반영해 구인, 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서비스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.

아울러 고용정보원이 보유한 각종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해 ①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, ②각종 고용정책·사업에 대한 평가, ③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 정책 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했다.

이정식 장관은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고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「고용24」 구축에 힘쓴 직원들을 격려하면서, “고용정보원의 강점인 디지털, 데이터, 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서 기존의 일자리정책 혁신을 뒷받침하고 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줄 것”을 당부했다.

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은 “전 세계적으로 개인별·기업별 맞춤형 서비스가 강화되는 추세에 발맞춰 인공지능, 빅데이터 등 신기술 도입을 확대해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고용서비스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1. 현장방문 개요

붙임2. 고용24 설명자료

붙임3. 장관 인사말씀

담당 부서	고용지원정책관 고용서비스기반과	책임자	과 장	이태훈 (044-202-7671)
		담당자	사무관	류영선 (044-202-7683)
<공동>	고용지원정책관 고용24 구축 추진단	책임자	팀 장	정홍석 (02-2250-5470)
		담당자	사무관	조경옥 (02-2250-5472)
<공동>	한국고용정보원 고용24총괄팀	책임자	실 장	임창경 (043-870-8670)
		담당자	팀 장	김용희 (043-870-8530)



□ 일시/장소

- '24.3.11.(월), 15:30~17:10 / 한국고용정보원 본원(충북 음성)

□ 참석자

- (정부) 장관, 고용지원정책관 등
- (한고원) 원장, 부원장 등
- (전문가)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, 길현종 노동연구원 본부장

□ 주요 내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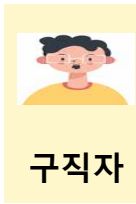
- 「고용24」 시연회 및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 간담회

□ 세부 일정 ※ 인사말씀까지 공개

시 간	진 행 내 용	언 론
15:30~15:35(05)	○ 한고원 도착	
15:35~15:40(05)	○ 차담	
15:40~16:55(75)	○ 현장 간담회	공 개
	1) 참석자 소개(2)	
	2) 장관 인사말씀(4)	
	3) 한국고용정보원장 인사말씀(2)	
	4) 고용24 설명 및 시연(15)	
	5) 고용정보원 증점 추진 과제(10)	
	6) 간담회(40)	
	7) 마무리말씀(2)	
16:55~17:05(10)	○ 고용정보원 순시	
17:05~17:10(5)	○ 기념촬영	

1 추진배경

- 그간 취업알선(워크넷), 직업훈련(HRD-Net), 실업급여·고용장려금(고용보험) 등 다양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운영
- 이로 인해 고용서비스를 받으려면 여러 사이트를 오가야 하고, 종이 서식을 그대로 옮긴 복잡하고 어려운 이용법으로 불편 호소



- 구직등록, 실업급여, 내일배움카드는 모두 구직활동에 필요한데, 매번 로그인해서 다른 시스템에 들어가야 하니 불편해요.
 - 이직일, 상실일, 구직급여일액 등등 말이 너무 어려워서 고용센터를 찾아갔는데, 기껏 찾아갔더니 저는 지원대상이 아니라고 하네요. 제가 지원대상인지 아닌지 미리 확인할 수는 없나요?



-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정부 지원금을 추천해줄 수는 없나요? 지원금이 너무 많고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서 받습니까.
 - 요건이 되는지 일일이 알아보고 서류준비하기가 힘듭니다. 받을 수 있는 지원금만 보여주고, 신청도 쉽게 해줄 순 없나요?

- 반면, 프랑스·독일 등은 단순 고용정보를 넘어서 빅데이터·AI를 활용한 맞춤형 일자리·훈련 등 디지털고용서비스로 전환 추세
- * 프랑스 고용센터인 Pôle Emploi는 2012년부터 디지털 전환을 위해 대대적 투자 시작, 2018년부터 3년간 4억 5500만 유로(한화 약 5,410억원)를 투입
- 이에 따라, 워크넷 등 정보망을 통합하고 AI 등 신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세대 디지털 고용플랫폼 「고용24」 구축 추진

2 주요 기능

“고용24로 한번에, 맞춤형으로 쉽고 편리한 고용서비스”

1 온라인 민원서비스 통합

-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·신고·조회 할 수 있게 하여 민원인의 접근성 제고
- * ①워크넷, ②고용보험, ③HRD-NET, ④취업이룸(국취), ⑤EPS(외국인고용), ⑥청년일자리, ⑦청년내일채움공제, ⑧중소기업청년직무체험, ⑨청년도전지원
- 정보 연계를 통해 각종 증빙서류와 입력항목을 축소하여 이미 보유한 정보는 요구하거나 증빙이 필요없도록 개선
- 예) 고용촉진장려금은 102개→25개로 입력항목을 축소해, 시범서비스('22.7) 결과 온라인 신청비율이 345%증가(전년동기 3개월 대비)

② 맞춤형 추천 서비스 강화

- 개인·기업의 특성에 따라 수혜 가능성이 높은 지원금 안내, 구직자 역량에 맞는 일자리·훈련·자격 추천
- 기업이 고용24 방문 없이 자체 업무시스템(ERP)에서 편리하게 기업지원금을 찾아보고 신청할 수 있도록 민간 ERP와 연계

③ 자동심사로봇자동화(RPA) 등 신기술을 활용한 효율적 업무처리

- 직원 업무 중 각종 지원금 심사, 우편발송·지급처리 등 단순·반복 업무를 자동화하여 업무효율 향상 및 추가 상담시간 확보

< 고용24 주요 특징 및 기능 >

대상	주요 기능·특징	세부 내용
개인·기업	사이트 통합	한번의 로그인으로 고용서비스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 *(개인) 취업지원+정부지원금+내일배움카드+실업급여 등 *(기업) 인재찾기+정부지원금+교육훈련+외국인고용 등
	맞춤형 추천	따로찾지 않아도 회원정보를 통한 맞춤형 정보제공 *(잡케어) 희망직종 기준 직무능력진단, 일자리·교육·자격증 추천 *(서비스 추천) 개인·기업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와 지원금 추천 *(노동시장정보) 직종별 실제임금, 기업/근로자 희망임금격차 등
	정보연계를 통한 신청절차 간소화	입력항목 축소, 신청 전 지원자격 사전진단, 정보연계를 통한 서류부담 감소를 통해 쉬운 신청 제공
	정책가이드	개인(취업단계별), 기업(인사관리단계별)에 맞는 각종 지원제도를 알기쉽게 소개
기업	민간 ERP 연계	기업 ERP(더존비즈온 등)에서 기업지원금 등 정보 검색 및 바로 신청 가능
내부직원	지원금 자동심사	별도 서류확인 없이 시스템이 적합여부 자동판정
	단순업무 자동화	일일이 수기로 발송하던 우편을 온라인으로 자동발송 하고, 전자팩스 수신 시 문서(신청서, 첨부) 자동 연계
	팸뱅킹	일반회계 지급처리 업무 간소화
	상담자동기록	STT(Speech To Text)를 활용, 상담내용 요약기록

③ 추진 경과 및 향후 일정

- (경과) '22.9월부터 구축을 시작, 현재 오픈 시 장애 등 혼란 최소화를 위해 업무 분야별로 나누어 단계적 오픈(~'24.3) 및 안정화 중
 - 워크넷·HRD-Net 등 기존 정보망도 당분간 병행운영 예정
- (향후 일정) 시범운영 및 병행운영 기간을 통해 사용자의 개선 의견을 반영하고, 하반기 중 고용24로 완전 통합
 - * 구체적인 일자는 고용24 이용 비율, 만족도 및 안정화 여부 등을 종합해 확정

- 반갑습니다.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.
 - 먼저 바쁘신 가운데 저희 방문을 환영해 주신 한국고용정보원 김영중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
 - 아울러,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박철우 한국공학대 교수님과 길현종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- 고용정보원은 그간 우리나라 고용서비스 발전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.
 - 1998년 개통한 워크넷을 시작으로 올해 온라인 고용센터 「고용24」의 오픈에 이르기까지 고용서비스 혁신을 주도해 왔습니다.
 - 아울러 고용동향 분석, 인력수급 전망, 미래 직업연구 등 고용정책의 싱크탱크로도 막중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.
 - 다시 한번 김영중 원장님과 고용정보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.
- 올해 3월부터 모든 국민들이 PC는 물론 모바일을 통해서도 「고용24」의 각종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직접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시범운영에 들어갔습니다.

- 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워크넷(취업지원), 고용보험(실업급여, 고용장려금), HRD-Net(내일배움카드) 등 서비스를 「고용24」 하나의 채널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, 국민 한 명, 한 명에게 쉽고 편리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.
- 특히, 청년 구직자는 '일자리 채용 청년지원금', '청년도전지원사업' 등 각종 청년일자리 사업을 「고용24」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, 전국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는 「고용24」에 탑재된 잡케어 프로그램을 활용해 재학생에게 진로탐색·설계 등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□ 다만, 여러분 모두 목도하고 계시듯 최근 급변하는 노동시장 환경은 고용정보원에 더욱 큰 역할을 주문하고 있습니다.

- 알파고에서 챗GPT로 인공지능 기술이 진화하는 동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는 우리 삶 깊숙이 자리 잡았고,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역시 높아졌습니다. 이에 걸맞은 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을 위한 부단한 노력이 요구됩니다.
- 또한, 일자리의 생성과 소멸 주기가 짧아진 미래 노동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풍부한 노동시장 데이터와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입니다.

□ 고용정보원은

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
디지털과 데이터 서비스의 혁신을 뒷받침할
업무추진 여건을 갖추었습니다.

- 이제는 디지털, 데이터 통합 서비스의 성과를
국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
임직원 여러분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할 때입니다.

□ 특히, 고용정보원의 강점인

①디지털, ②데이터, ③연구기능의 융합과 협업을 통해
기존의 노동시장 정책을 혁신하고
국민 체감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가야 합니다.

- 먼저 2024년은 「고용24」 출범 원년으로
하반기 정식 오픈 전까지
국민 한 명 한 명에게 쉽고 편리한 서비스로
안착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.

구인, 구직 등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
'퀵서비스'를 중심으로
인공지능 기반의 세계 일류 서비스 실현에도
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.

- 또한, 고용정보원이 운영 중인
국가일자리정보플랫폼에 보유한
5천5백여 종의 고용행정데이터를 활용해
①우리나라 노동시장에 대한 심층분석,

- ② 각종 고용정책·사업에 대한 평가,
- ③ 디지털 서비스 개선 등 정책 혁신을
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.

- 아울러 청년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이
고용서비스 중심으로 변화한 것에 발맞춰
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
맞춤형 고용서비스를 확대하는 등
청년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가 창출·확산될 수 있도록
고용정보원의 역량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.

- 이러한 과제가 실제 성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
우리부와 고용정보원 간 협업,
고용정보원 내 정보화본부와 연구본부 간 협업이
무엇보다 중요합니다.

- 우리 고용노동부도
고용정보원이 명실상부한 디지털과 데이터 기반의
고용서비스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
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

- 끝으로 오늘 「고용24」 시연회에 이어
간담회 시간도 마련된 만큼
향후 고용정보원이 지향해야 할
비전과 미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
디지털 고용서비스 혁신에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
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